

화석정(花石亭)

입 진왜란 때 충주(忠州)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궁궐에 전해지자 선조(宣祖)는 파천(播遷)을 결심하였다.

1592년 5월 30일 새벽, 임금의 행렬이 돈의문(敦義門:西大門)을 빠져 나갈때 부터 억수같이 쏟아진 비는 임진강에 이르러서도 멈추지 않았다.

물이 불어 범람한 임진강에는 나룻배가 5~6척 있었는데 임금도 아랑곳 없이 대소관원들이 먼저 건너려고 다투어 상하가 문란한 가운데 칠혹같이 어두운 이 아비규환의 도강(渡江)은 위협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이때 도승지 이항복(白沙)이 강언저리에 있던 화석정(花石亭)에 불을 질러 그 불빛으로 길잡이를 했다고 한다.

그날 밤, 파주목사가 임금의 저녁 수라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호위하던 사람들이 종일 굶었던 터라 차려놓은 음식을 다 집어 먹어버렸다. 겹을 먹은 목사는 도망쳐 버리고, 허기진 임금은 내시에게 술을 가져오라 시켰으나 없었다. 차라도 한잔 마시자 하였으나 그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

때마침 시중하던 내의원(內醫院)의 한 하인이 상투속에 비상식으로 숨겨왔던 설탕의 반덩어리를 꺼내어 강물을 떠다가 타서드렸고 그로써 굶주림을 면했다고 하며, 비정의 이일이 있던 후 의리없는 벼슬아치 들을 두고 “설탕 반덩어리만도 못한자”라는 속담이 생겼다고 한다.

花石亭은 경기도 파주군 울곡리, 임진강이 유유히 흐르는 언덕위에 세워진 작은 정자이다.

임진왜란을 예견하여 십만양병설(十萬養兵說)을 주장한 울곡(栗谷), 이이(李珣)의 5대조가 처음 지었고, 울곡이 벼슬에서 물러난 후 여생의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울곡이 만년에 이곳에 기거 할 때 그는 나무기둥에 기름칠을 하는 것이 일과였다고 한다.

집안 사람이나 마을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도 그는 아무 대답없이 기름칠만 하였다.

이 花石亭 기둥에 기름을 칠한 이유는 그가 죽고 8년만인 임진년 5월 그믐날 밤, 칠혹의 도강에 찬란히 몸을 태워 불빛을 던져준 울곡의 호국사상으로 설명되었다.

花石亭 아랫쪽에는 임진강을 오가는 나룻터가 있다.

400년전 외란(外亂)을 피해 한 나라의 임금이 개성(開城)으로, 의주(義州)로 쫓겨 다니던 비극의 한 현장이기도 한 이곳에서, 도하(渡河)훈련을 하던 외국인 병사 2명이 장갑차가 침몰하여 미쳐 빠져나 오지 못하고 익사하였다.

시신을 지키던 흑인병사의 유난히 큰 키와 꾸부정한 어깨가 풍기는 이질감속에서도 겹먹은 듯한 큰 눈속에, 그날 저녁 황공하옵게도 임금님의 수라상을 준비하며 후일 있을 엄한 문책과 급박한 현실 사이에서 조금해 하는 파주목사의 난처한 입장과, 목숨만큼이나 귀한 설탕반쪽을 강물에 풀며 몫의 배분으로 갈등하였을 내의원 하인과, 극한 상황하에서도 실추된 권위를 되찾아 임금의 파천길을 책임 지고자 했던 도승지 이항복과 그때나이 막 불혹에 접어든 임금 선조의 다급한 심경들이 하나씩 하나씩 오버랩 되는 듯하다. 花石亭에는 불(火)이 있고 세상살이가 있다.

金 東 一 / 危險管理部 課長